



## 유로존 10월 위기설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안이 독일에서 통과되면서 최악의 고비를 넘겼으나, 10월에는 유로존 주요국의 국채 만기가 예정되면서 또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.
- 10월에는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, 그리스 등 유럽 4개국이 발행한 국채 952억 유로(약 152조원)의 만기가 돌아옴.
  - 프랑스 518억 유로, 스페인 241억 유로, 이탈리아 157억 유로, 그리스 36억 유로의 국채만기가 도래함.
  - 특히, 스페인은 10월 21일과 31일 상환해야 할 국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1.20%와 1.77%에 해당하는 100억 유로와 141억 유로임.
- 4개국은 11월과 12월에도 각각 762억 유로와 695억 유로의 국채 상환이 예정됨.
- 스페인이 그간 재정 긴축 노력을 했지만, 부채 대비 만기 상환 규모가 커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피치가 프랑스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가운데 10월 중 무디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예정이어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가중되고 있음.
- 피치는 유럽국가 국채에 대한 프랑스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커지면서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함.
  - 프랑스 은행들이 그리스와 아일랜드, 포르투갈의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는 많지 않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하면 그 위험도가 급증한다고 지적함.
  - 피치는 현재 BNP 파리바 은행에 대해 'AA-',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에 대해 'A+',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에 대해 'AA-'를 부여하고 있음.
- 이탈리아는 6월부터 '부정적 관찰'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무디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이 S&P와 피치의 평가 등급보다 높기 때문에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큼.

- 스페인도 7월부터 ‘부정적 관찰’ 대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음.
  -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도미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짐.
- 한편, 10월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,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등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면서 유로존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음.
- 10월 3~4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의 6차분(80억 유로) 지원 여부가 결정됨.
  - 유럽중앙은행(ECB)은 10월 6일 은행권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커버드본드(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) 매입 방안을 검토함.
  - 주요 20개국(G20) 재무장관회의(14~15일)와 유럽정상회담(17~18일), 중국·유럽연합(EU) 정상회담(25일) 등이 예정됨.

(Financial Times 9/30, Wall Street Journal 9/29, Bloomberg 9/30 등)